



## 커피의 정치학

이현주

“우리 모두는 행동을 통해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은 정치적 행동이 될 수 있다.”

- 반다나 사바 (인도의 과학자이자 환경·인권·국제문제 운동가) -

소비자가 동네 슈퍼마켓이나 커피숍에서 커피 한 봉지를 살 때 거기에 지불하는 가격은 단지 커피 원두 값만이 아니다. 소비자가 커피와 만나기까지 발생한 모든 일, 즉 포장과 운송, 로스팅, 분류 및 등급, 가공, 그리고 수확에 들어간 비용 모두를 지불하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고리처럼 잇고 있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가치사슬(value chain)이라고 한다.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각자의 단계에서 커피에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일을 한다. 커피는 가치사슬을 따라 움직이면서 점점 가치가 더해지고, 외형적인 변화를 거치기도 하며(세척, 로스팅 등) 자리이동을 하기도 하고 한다. 커피에 붙은 가치의 총액은 커피가 가치사슬을 따라 변화하고 이동하는 데 든 비용에 이윤 또는 자본증가분을 합한 것이 된다. 상품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치사슬을 움직이는 동력은 이윤이고 가치사슬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몫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유시장 체제에서 가치사슬에 유입되는 돈은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서 나온다. 가치사슬 상의 다른 이들은 모두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나눠 가진다. 소매상점에서 커피를 사면, 그 값중 일부는 소매상에게 남고 나머지는 소매상이 도매로 사들인 볶은 커피 업체에 전달된다. 커피 업체는 받은 돈 중 일부를 생두 수입업자에게 지불하고 그중 일부가 다시 커피 생산국의 수출업자에게 간다. 수출업자가 생산자 중간거래상에게 넘긴 돈에서 중간거래상이 챙기고 남은 돈이 비로소 커피 농민에게 도착한다. 사슬이 길수록 지불한 돈은 더욱 산산이 흩어진다.

커피라는 농산품이 유난히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무역품목인 이유는 커피 가치사슬이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사슬을 타고 커피는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다시 같은 사슬을 타고 선진국의 돈이 저개발 국가로 흘러 들어간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이 사슬에 달려 있다. 대다수의 커피 생산국은 커피로 벌어들이는 달러로 대부분의 외화를 충당하기 때문에 후진국 경제에서 커피 가치사슬이 차지하는 자리는 굉장히 크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 국제 커피 가격 붕괴는 몇 세대에 걸쳐 인간적, 사회적, 생태적 파괴로 이어져

그렇다면 커피 생산국이 수확과 가공 외에도 더 많은 부분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외화를 자국으로 끌어들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로스팅을 하거나 인스턴트 커피 제조 공정 등이 현지에서 이뤄진다면 가난한 생산국에 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가치사슬 위에 있는 나머지 당사자들의 이해득실과 충돌한다. 1960년대 몇몇 생산국이 커피 가공시설(특히 인스턴트 커피 제조 공장)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다국적 커피 기업의 많은 지원을 받았다(네슬레는 브라질이나 코트디부아르등의 주요 커피 생산국에 자사 커피 가공시설을 설립했다). 커피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물량을 통제하던 국제커피협정(ICA) 시절에는 커피 소비국 정부들이 정치외교상의 이유로 커피 생산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생산국이 커피 산업에서 더 많은 수입을 얻도록 도와주려 애썼다. 그러나 1989년 ICA가 붕괴되자 가치사슬의 대부분이 다시 소비국 쪽으로, 소비국 중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근거지로 넘어왔고 그에 따라 생산국의 수입도 줄어들었다. 1986년에는 미국에서 볶은 커피의 소매가 1달러당 37센트가 개발도상국으로 갔다. 15년 후인 2001년에는 70%가 줄어들어 소매가 1달러당 12센트만이 생산국으로 갔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 내 실질 소매가는 40% 상승했다. 커피 생산국 각국의 커피위원회와 수출통제기구가 와해되면서 심지어 커피 가치사슬 중 그나마 생산국 영역에 있는 연결고리도 이제 반드시 생산국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이다. 엘살바도르 등 산지에 나가보면 일본이 소유한 대형 드라이밀(생두를 건조하여 보관하는 곳으로 수출 전 보관 장소)까지 눈에 띄는 정도이다.

‘커피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국제개발지원 기구들과 다국적 커피기업들 모두 커피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뒤에서는 커피 가격을 더 떨어뜨리기에 바빴다. 1998년 프랑스는 베트남에 개발기금을 지원해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베트남 아라비카 커피 재배를 확대했다. 1991년 생산 규모 10위에서 2001년 브라질에 이어 제2의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베트남의 엄청난 생산량 증가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프랑스 정부가 수출주도형 개발을 촉진해 빈곤을 줄여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의해 자금 조달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막대한 생산량 증가가 커피 가격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가난한 커피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네슬레는 멕시코를 포함한 다른 커피 생산국에게 값싼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를 수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2002년 커피 가격이 유례 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세계은행은 라오스의 커피 재배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했고, 네슬레도 태국과 필리핀에 비슷한 일을 했다.

외화소득의 상당 부분을 커피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 <월스트리트저널>의 피터 프리츠가 표현한 것처럼 “국제 커피 가격 붕괴는 중앙아메리카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약 1억2500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붕괴다.” 결국 많은 농민들이 소와 같은 자산을 팔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식량 소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필수 지출을 줄인다. 중미 커피농장들은 수확기에 대규모로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세계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만 명의 장기고용 일꾼과 40만 명의 임시고용 일꾼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중 니카라과는 1998년 허리케인으로 인한 막대한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12만여 명이 해고됐고, 심각한 기근에 시달려서 오랜 시간 후유증을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 농사를 포기했고,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국경을 넘었다. 이주하지 않았거나 이주할 수 없었던 많은 커피 농민들은 커피 대신 수익성 좋은 다른 농작물로 바꿨고, 숲의 그늘을 없앴으며,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가축을 키우거나 마약성 작물을 재배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에서는 코카나무와 양귀비가, 에티오피아에서 각성효과가 있는 카트나무가 커피 나무를 대체해갔다. 이런 산림 벌채는 생태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토양 침식, 서식지 파괴, 가축으로 인한 토양다짐 현상이 늘어나면서 강우량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모든 현상이 커피 가격 폭락이 남긴 결과이다. 2004년 이후 시장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는 숲에 나무를 되살릴 수 없고 이주로 인해 붕괴된지역 공동체를 복구하기도 어렵다. 인간적, 생태적 파괴가 커피 생산국에 미친 영향은 다음 수십 년, 또는 앞으로 몇 세대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 **약속 지키느라 더 가난해지는 빈국, 약속 안 지키는 부국**

자유 무역모델이 지닌 불공정함은 이런 식이다. 부자나라들이 자국의 농산품에 엄청난 액수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덤핑 처리해서 수출하면, 가난한 나라의 농민들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생계수단을 잃고 땅에서 쫓겨나 결국 살아남기 위해 대도시로 흘러든다.

커피와 코코아, 차처럼 주로 부유한 북반구에서 소비되는 수출작물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가격의 롤리코스터를 타고 '장기적 불황' 속에서 '단기적 가격 상승'만 맛보게 될 것이다. 작물을 재배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수확물을 지역 중간상인들에게, 그것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며 판다. 많은 농민들이 신용거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악덕 사채업자나 은행에 빚을 지고 땅을 넘겨야하는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이 외채로 인한 이행 조건과 이른바 WTO의 무역규정에 의해 꼼짝할 수 없게 되면, 수입관세를 통해 자국의 빈약한 경제나 신생 산업, 소규모 농민들을 불공정한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빈국들이 WTO의 요구조건에 따라 모든 농업보조금을 폐지하는 동안, 부국들은 원래의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아왔다. 여전히 진행 중인 상품 위기는 옥수수, 커피, 차, 면 등 많은 부분들에 남반구의 소규모 농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지방 주민들보다 거대 농업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무역정책의 문제점 또한 드러나고 있다.

### **공정무역의 탄생**

커피는 최초의 공정무역 상품이자 가장 규모가 큰 품목이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공정무역 상품이라는 커피조차도 세계 커피 시장의 1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공정무역은 현재의 위치에서 더욱 성장하여, 세계 경제 거래의 뿌리 깊은 불공정함을 개혁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불공정했던 남반구와 북반구의 무역 조건은 1970년대 이후 남반구에 더욱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국가 간 수입 원가나 가구당 생활비에 비해 농산품에 매겨지는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평등 교환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자급자족하던 농민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기아는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토지가 단지 '수출작물'을 경작하도록 전환되고, 정부 보조금

으로 수입된 값싼 농산물이 영세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공정무역은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함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공정무역 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IMF와 세계은행 설립의 토대가 된 브레턴우즈 협정(1944년, 미국의 브레턴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이 모여 통화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설립을 결정한 협정)과 오늘날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가트GATT가 체결되던 바로 그 시점에 공정무역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공정무역 운동은 그 시작부터 '개발'과 '연대'라는 두 갈래의 줄기(때로 그 경계가 모호하기도 한)로 나뉘어왔다.

'개발 무역'의 관점에서 주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던 미국과 유럽의 자선 단체들은 빈곤하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해나갔다. 1940년대 후반 메노나이트 교회는 남반구의 여러 빈곤 지역과 상거래 계약을 맺고 고용과 소득을 창출해냈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늘어나, 몇몇 단체들은 교회에 기반을 둔 유통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메노나이트 교회가 설립한 '텐사우전드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와 브레스턴 교회가 설립한 'SERRV'가 그 예이다. 개발 무역의 관점은 옥스팜Oxfam, 브레드포더월드Bread for the World, 카리타스Caritas 등 남반구에서 개발과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굶직한 단체들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남반구 국가에서 협동조합과 제휴단체를 설립하여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품, 주로 수공예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던 많은 신진 무역단체들은 대중적인 좌파 사회운동 진영과 관련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연대는 공정무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에 설립된 영국의 트윈 트레이딩Twin Trading은 모잠비크, 쿠바, 북베트남, 이후 니카라과까지 부유한 나라의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된 사회주의 국가의 생산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마련했다. 벨기에의 옥스팜-베렐트빈켈스Oxfam-Wereldwinkels와 네덜란드의 슈티크팅 아이델 임포트Stichting Ideële Import도 같은 맥락이다. 1980년대 초반 정부의 중미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시민단체들은 니카라과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카페니카Cafe Nica'를 판매했다. 이 운동은 '원조 대신 무역을' 내걸었다. 자선활동의 의존성과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 원조사업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무역을 통한 지역 성장과 자립이라는 철학을 차별화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다.

첫 번째 공정무역 커피브랜드 인증마크는 1988년 등장했다. 멕시코 오악사카 주의 커피협동조합(프랑스 신부가 이끄는) 소속 농민들이 네덜란드의 개발원조단체인 솔리다리다드에 대량의 커피를 공정한 조건으로 유럽 소비자 시장에 판매하자고 제안했다. 몇 년간 세계상점 네트워크를 통해 소량 팔아온 상징적인 구매를 넘어서, 조합 소속 농부들의 소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구매를 요청한 것이다. 솔리다리다드는 처음에 주류 슈퍼마켓에 유통시킬 브랜드를 만들려던 계획을 변경, '막스 하벨라르'라는 인증마크를 만들었다. 첫 번째 인증마크의 탄생으로, 대안무역은 공정무역으로의 전화를 맞았다. 더불어 공정무역 운동의 무게 중심이 수공예품에서 농산물로 옮겨갔다.

커피가 최초의 공정무역 인증작물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커피가 매년 무려 70억 달러나 거래되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세계 유통량으로 보면 대개 오일 뒤를 잇는 품목이다. 또, 세계적으로 2천~2천5백만 영세농민 가구에 가장 돈이 되는 작물이며, 더불어 비교적 쉽게 자급(식용) 작물과 같이 재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커피는 또, 수확기부터 분쇄되는 시

점까지 다른 재료와 섞이지 않고 독립적인 상품으로 남아 있으며, 비교적 적은 가공 단계를 거치고 잘 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상적인 공정무역 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생산자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대강 그려볼 수 있고 정확하진 않더라도 아침에 마시는 공정무역 인증커피가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공정한 대가를 받은 커피협동조합 소속의 농부가 재배한 것이라고 상상한다. 상품에 인격을 부여하고, 상품이 생산된 사회의 환경과 생산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공정무역의 능력이자 공정무역운동이 지닌 도덕적 우위의 핵심이다.

공정무역 커피를 둘러싼 움직임은 서유럽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1997년, 각 나라의 인증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 국제공정무역인증협회FLO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더 많은 종류의 상품으로 확대되어 1990년대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바나나, 차, 코코아, 설탕, 꿀, 쌀, 오렌지 주스 등 식민주의 시대의 농업적 유산이었던 거의 모든 열대우림 지역 작물들이 유럽 시장에 등장했다.

수년간 유럽에서 성장을 지속하던 공정무역 커피가 침체되기 시작하자, 공정무역운동진영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바라보았다. 대형 커피 소매업체들이 여전히 공정무역에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였다. 공정무역을 주류 소매유통망에 진입시키고자 했던 단체들은 '스타벅스'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스타벅스 측은 커피의 품질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2000년 4월 '글로벌익스체인지'가 29개 도시에서 '스타벅스 들볶기Roast Starbucks' 항위 시위를 열기로 하자, 시위 하루 전날 스타벅스는 미국 내 매장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는 데 합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커피전문점 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또 다른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 공정무역, 전혀 다른 두 개의 모델

스타벅스 제품 중 공정무역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퍼센트, 2008년 6퍼센트에 불과한데도 일부 소비자들은 스타벅스가 공정무역 모델을 개척했다고 생각했다. 스타벅스는 기업 이미지와 공정무역을 성공으로 결합한 케이스이다. 미국 내 모든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단독 인증 권한을 갖고 있는 트랜스퍼어 USA의 당시 공정무역 가입 조건은 자체 공급량의 5퍼센트 이상을 구매해야했다. 그러나 스타벅스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할당량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늘려야할 구매량에 대해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무역 커피만 취급해온 일부 로스팅 회사들은 스타벅스가 '거물급 기업'이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분개했다. 공정무역 운동가들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형 기업들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지만 기업들은 저마다 이해관계 및 힘의 크기가 다르다. 스타벅스는 결국 공정무역 운동의 핵심 원칙을 선별 적용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남아, 공정무역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익 지향적, 비이상주의적' 기업들은 공정무역을 수익성이 있는 틈새시장으로 여긴다. 이들에게 공정무역은 기업 이미지를 세탁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들은 이익 및 주주 수입 최대화에 집중하며, 이들의 제품 중 공정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

반면 윤리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며, 대안적인 성격을 갖는 중소 규모의 로스팅 업체들은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생산자 단체들과 협력하거나 여러 갈등 지역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공정무역은 지금 회운동으로서의 공정무역의 영향력을 굳게 믿는 사람들과 공정무역을 부차적 시

장이나 이미지 개선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섞여 들면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공정무역은 시장접근을 위한 도구여야 할까, 아니면 시장을 개선, 또는 본질적으로 변혁시키는 도구여야 할까?

거대 기업의 진출로 인한 공정무역 매출의 급속한 증가는 공정무역 기준과 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정무역 운동과 생산자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다국적 기업의 참여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핵심적 쟁점은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어떤 조건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 변수로는 진행 속도를 꼽는다. 이념적 지지자들은 인증기관들과 일부 공정무역 NGO들이 성급하게 매출을 높이려다 길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인증기관들이 공정무역 인증마크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원칙에 맞게 시장을 개발해나가야만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커피 한 잔에 담긴 가난함,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과 공의는...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적 신조로, 시장주도의 성장과 사업의 규제완화,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 삭감, 경제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정부 역할 축소, 유연한 노동시장 창출을 강조한다. 1980년대 초 이후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 기관에 의해 채무국에 부과되어왔고, 현재는 WTO 정책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부국들의 경제정책에 있어 지배적인 기조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앞에서 ‘커피’를 매개로 본 바와 같이 빈익빈, 부익부에 더욱 뚜렷한 경계선을 만들어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기중심적 논리는 한 나라의 행정과 사법과 입법에만 머물지 않고 국경을 넘어 가난한 나라에 대한 지배 구조를 만들어낸다.

김회권 목사는 그의 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국의 죄악을 속하소서” (<청년설교 2>, 복 있는 사람)에서 ‘자연적·야생적 인간 사회는 만민에 대한 만민의 각축과 약탈로 치달고, 그 가운데 필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마련이다’라고 지적한다. 이어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현대 사회가 가난과 공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리아 가나안 일대의 여러 왕국들을 전쟁을 통해 정복한 인물이지만 ‘낮의 권력은 장악했을지 몰라도 밤마다 거룩한 하늘의 순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경고를 받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왕의 꿈에 한 나무가 등장한다. 나무가 자라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고 장대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아래 살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 장대하고 아름다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그리고 하늘에 닿고 땅 끝까지 미칠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느부갓네살의 왕권은 하늘의 영역을 침범하는 수준의 망자존대(妄自尊大)적 권력이었다. 마침내 그 장대한 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순찰자의 명령에 의해, 몸통이 베어 없어지고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져 쇠와 늦줄로 동여매인 채 들풀에 방치된다.

여기서 김회권 목사는 “순찰자”라는 단어를 주목한다. 순찰자로 번역된 아랍어 ‘이르’는 ‘깨우다, 깨우치다, 격동시키다’를 의미하는 아랍어-히브리어 동산 ‘우르’에서 파생된 명사로, 인간의 오만한 권

력 행사에 의해 격동된 존재, 곧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거나 인간의 망자존대적 권력 남용을 일깨우는 천사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 김회권 목사는 강대한 제국의 제왕만 감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위의 권력이 행사되는 곳, 그리고 그 권력이 남용되는 곳에는 거룩한 순찰자의 탐조등이 비치고 있음을 강조한다. 거룩한 천상 감찰자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권력에서 가장 멀리 소외되어 사는 약자들이 또한 일종의 천상 감찰자임을 밝힌다. 성경을 통틀어 보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약자들이 내지르는 아우성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신학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라고 소개한다. 현대 경제학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은 경제 발전의 어둔 음영에 있는 자, 나라의 각종 경제지표를 하향 평준화하는 존재일 뿐, 국민으로서 대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정치나 권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은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실까’라는 질문에, 김회권 목사는 아르헨티나의 해방신학자 구스타브 구티에레즈(G. Gutierrez) 신부의 말을 빌고 있다. 구스타브 신부는 〈가난한 자들의 역사적 위력〉이라는 책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발생한 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유력한 지배 계층의 지속적인 탐욕과 불의한 착취 구조, 불평등한 국제교역 구조, 양심에 반하는 고용 조건처럼 철저히 강하고 유능한 인가들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된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신다고 말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정치 질서, 당신의 자애로운 성품과 공평과 정의의 마음을 크게 손상시키는 권력 체제나 경제 체제, 국제교역 체제를 정의와 공평의 기준으로 바로잡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것이 한 나라와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의 거룩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돈을 뜻대로 하고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일상 생활 속에서 불의하고 배타적인 경쟁 체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형제자매로 여기는 깊은 영성을 지닐 수 있을까?

김회권 목사는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제국에게 폭력성과 잔혹성, 경쟁력 숭배를 포기하고 동정심과 자비의 정책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다”며,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사는 길은 한 가지 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므로 죄악을 사하는 것뿐임을 힘주어 말한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 부인은 자신의 계급적, 계층적 기득권과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회권 목사는 여기서 자기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국가의 자기부인은 국체의 포기이다. 바벨론 제국의 자기부인은 제국주의적 탐욕의 자기부인이다. 담배회사, 마약회사, 주류회사, 무기회사 같은 탐욕적인 다국적 기업체들의 자기부인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목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경제적 생산성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 인건비를 줄 알고 아무 대책 없이 대량해고를 일삼는 기업들의 자기부인은 계량화된 생산성 개념 자체를 포기하고 함께 하는 공동번영의 기업 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즉, 과잉 욕망과 과잉 소비의 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체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

### 미국 인텔리젼시아와 테크노서브의 부의 분배를 위한 창조적 활동

브라질의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데 실바는 세계 무역을 ‘단지 부를 창출하는 도구가 아닌,

부를 분배하는 도구'로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커피를 부를 분배하는 도구로 만다는 데 있어서 많은 잠재력을 지닌 공정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정무역이 일부 열대 농산품에 대한 추상적인 시장 전략으로 남지 않고, 세계경제 정의를 개편할 필수 요소가 되려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 가격 조정, 이익 분배 재고, 공정무역의 진입 장벽 낮추기, 공정무역 내부에 있는 힘의 균형 관리, 공정무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공정무역 외에도 커피를 통해 세계 경제에 선하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례를 두 가지 더 살펴보는 것으로 글을 맺을까 한다.

지난 몇 년간 공정무역이 아닌 다이렉트 트레이드(직거래)를 시도해온 이들이 있다. 공정무역 라벨이 붙은 커피를 구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아예 개별 농장 혹은 생산자단체와 직접 무역 관계를 맺는 것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급 커피 시장에서 일부 행해지고 있다.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본격화시킨 주인공들은 미국 고급 커피 시장의 핵심이자 전세계 소규모 로스터리 회사들의 롤 모델이며, 커피 농민들의 존경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카운터컬처, 인텔리젠시아, 스템프타운'이다. 제 3의 물결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원산지'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를 하였다. 그들은 스페셜티 커피 사업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커피 농부들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커피가 재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농부들이 스페셜티 커피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커피가 품질을 만족시키면 공정무역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 또는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며 구매하였다. 그것은 몇 년간의 오랜 협력을 요하는 일이었고, 때로 생산자 협회 내 기득권자들과의 마찰도 감수해야하는 일이었다.

이제 커피 시장에서 자리를 확고히 하였을 뿐아니라 탄력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들 회사는 지난 2, 3년 전부터 생산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커피를 공급하는 전세계 커피 산지에 흩어져 있는 농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워크숍을 여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커피를 재배하는지 볼 기회가 평생 없을 뻔하였던 가난한 커피 농부들에게 이것은 유례 없는 소통과 배움의 시간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동료들의 사례 발표(가지치기, 비료 만들기, 수확하기, 건조 등 커피와 관련한 무궁무진한 주제)는 이들에게 서로 영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또다른 커피를 통한 부의 재분배 사례로는 '테크노서브 Techno Serve'와 같은 단체가 있다. 1968년 미국 코네티컷의 한 실업가에 의해 시작된 재단이며, 현재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그 중심에 있다. 테크노서브가 취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가족, 지역 사회 및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 수백 명의 전문가 집단을 고용하여 농업, 대체에너지, 관광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하는 것이 장점이다. 커피와 관련하여는 동아프리카와 중미에 사무소를 두고, 커피 농사의 각 단계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농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씨앗을 건조하는 테이블부터 토질 분석 및 그에 따른 비료치기 등 세세한 데 이르고 있으며, 실제 그 품질이 많이 향상되어 미국 인텔리젠시아의 경우 에티오피아 커피를 구입할 때는 테크노서브 관련 농민들이 생산한 커피를 구입한다.



우리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에는 다채로운 맛의 세계 뒤에 안타깝게도 현대 무역의 역사, 불공정한 권력관계, 가난한 농부들의 거칠거칠한 손길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잠언 14:31)”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무를 갖게 한다. 그 의무는 ‘공의, 공정’이라는 수식어가 현실과 맞아떨어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이다. 커피 가치사슬 안에서 공의와 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 참고도서

〈커피의 정치학 : 공정무역 커피와 그 너머의 이야기〉 (다니엘 재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The Coffee book〉 (나나 루팅거, 그레고리 디컴 지음, 사랑플러스)

〈신의 커피〉(마이클 와이즈먼, 광문각)

〈김희권 목사의 청년설교 2〉(김희권, 복 있는 사람)